광주시, 공유자전거 운영 '고민'

오는 28일 자전거 탑승자 안전모 착용 의무화
지자체 · 이용 시민, 법 실효성 의문 제기해

자전거 탑승자의 안전모 착용 의무화를 앞두고 공유자전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시청과 각 구청 · 주민센터 · 지하철역 등 총 62개소에 633대의 공유자전거를 비치해 운영하고 있다.

공유자전거 이용률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 2014년 2만91회에 불과했던 대여횟수는 2015년 3만9729회 · 2016년 4만2674회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도 시의 공유자전거가 3만8169차례 대여 · 이용됐다.

이처럼 공유자전거 사업이 활기를 띠는 상황에서 광주시는 순차적으로 전 공유자전거에 안전모를 갖출 계획이다.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 안전모를 이용자가 직접 갖추도록 하고 있어 공유자전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모까지 대여해줄 의무는 없다.

그러나 공유자전거를 빌려주는 지자체가 자전거 탑승자에게 의무화된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법 위반을 방치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법 시행을 앞두고 이달 말까지 자전거 정비비 650만원을 이용, 전체 663대 가운데 82%에 해당하는 550대의 공유자전거에 안전모를 비치한다.

남은 자전거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으로 별도 편성해 안전모를 확충한다.

또 법 시행 전까지 이용 시민들에게 착용을 권고하되, 법 시행 이후부터는 반드시 안전모 착용 여부를 확인한 뒤 자전거를 대여해준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자체도, 공유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도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유자전거 이용시민에게 안전모 착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 "공유자전거 이용 시민이 안전모를 빌려 가지 않거나 착용하지 않는 것까지 지자체가 관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여소마다 최소 1명의 관리인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분실은 최소화할 수 있겠지만,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모 정비예산은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오후 광주시청 공유자전거 대여소 앞에서 만난 한 시민은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여러 사람이 쓴 안전모를 착용한다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유자전거를 이용해 승촌보에 다녀왔다는 윤모(46) 씨는 "자전거를 빌릴 때, 안전모에 대한 안내와 대여 권유를 받았지만 쓰지 않았다"면서 "햇빛이 강한 날에 안전모를 착용하면 덥기만 하고 불편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허울 좋은 법일 뿐이지, 실효성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도로와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서은홍 기자

추석 앞두고 농산물도매시장 찾은 시민들 추석 연휴를 2주일 가량 앞둔 9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선물용 또는 제수용 과일 등을 구입하고 있다.

'갑질 논란'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사의 표명

갑질과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퇴진을 요구받았던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9일 광주 광산구 등에 따르면, 신광조 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지난 7일 김삼호 광산구청장과의 면담에서 이사장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 시설관공단 환경 · 일반직 노조는 최근 "신 이사장이 부당한 노동 행위를 지시했고, 폭언 · 욕설을 일삼았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이사장 해임을 요구하는 1인 시위도 벌여왔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건,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명예훼손 고발 건, 광산구의회 감사 불성실 대응, 폭언 · 욕설, 업무 미숙, 사적인 일 지시 등으로 이사장 자질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신 이사장은 동호회에서 키우는 토종닭 관리에 직원들을 동원하는가 하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글을 올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시정하고 공단 업무에만 전념해 줄 것을 요구하는 노조위원장에게 욕설을 담은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 주관 경영실적 평가(2017년 기준) 결과 구 시설관리공단이 자치구 시설공단 37곳 중 종합순위 꼴찌를 한 것을 두고도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평가에 따른 불이익을 줬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이사장은 "공단 업무에 불성실하게 임한 적이 없다. 노조의 주장에 수긍해 물러나는 것이 아니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며 "조만간 사직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형택 기자

광주기독병원 사흘 만에 파업 철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기독병원지부가 사흘 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8일 기독병원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파업에 참여했던 350여명이 업무에 복귀했다.

그동안 노조는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했으며, 잇딴 교섭에서 노조 측이 임금 총액의 4%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이 1.9% 인상으로 맞서 타결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5일부터 조합원 480명 가운데 350여명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사 양측은 지난 7일 오후 11시에 벌어진 교섭에서 임금 3% 인상 · 인력 충원 · 신규 업무 숙지 기간 확대 등에 합의했다.

파업에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근무자가 제외돼 우려됐던 진료 차질은 없었다.

구례 야산서 갈비뼈 부러진 80대 구조

구례군에서 80대 노인이 실종됐다가 11시간 만에 구조됐다.

9일 구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께 구례군 문척면에 사는 A(84)씨가 마을 야산에 산초(잼피)를 채취하러 나간 이후 행적이 묘연했으나, 11시간 만에 갈비뼈가 부러진 채 야산에서 발견됐다.

A 씨의 가족은 A 씨가 집을 나간 지 수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경찰은 소방공무원, 인근 주민 등 30여 명과 함께 A 씨가 평소 자주 다니던 산길 등을 수색하던 중 9일 오전 1시께 갈비뼈가 부러진 채 쓰러져 있는 A 씨를 산속에서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실종 당시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아 위치 파악에 어려움이 따랐고 늦은 밤에 신고된 점, 경사로가 70도 이상 되는 악산에다 수풀도 많이 자라 빠른 수색에 어려움이 따랐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목포서 주행 중 벤츠 승용차 화재

8일 오후 1시46분께 목포시 옥암동 한 도로를 달리던 김모(58) 씨의 벤츠 S350L 승용차에서 불이 나 119에 의해 10여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엔진룸 등 차량 일부가 타고 그을려 소방서 추산 9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화재 직후 김 씨가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룸 쪽에서 연기가 나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신고했다'는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 송정역서 50대 철로 추락 중상

8일 오후 1시46분께 광주 광산구 송정동 송정역 내 승하차장에서 A(59)씨가 철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 씨가 역내에 진입 중이던 열차에 몸이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고 수습을 위해 수서행 SRT 고속열차 운행이 25분 간 중단됐다.

거동이 불편한 A 씨는 전동휠체어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

장흥 해상서 실종 50대 선장 숨진 채 발견

장흥 해상에서 실종됐던 50대 선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8일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5분께 장흥군 장환도 선착장 남동쪽 50m 해상에서 선장 A(52) 씨가 숨져있는 것을 수색 중인 민간 구조대가 발견했다.

해경은 전날 오후 10시께 A 씨를 태운 연안통발어선 D호(7.31t · 승선원 4명)가 장흥군 장환도 동쪽 0.8㎞ 해상에서 암초에 부딪히면서 A 씨가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산역서 흉기 들고 인질극 벌인 50대 검거

부산역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여성 환경미화원을 인질로 잡고 위협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붙잡혔다.

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부산 동구 부산역 11번 승강장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여성 환경미화원을 인질을 잡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 즉시 경찰은 전 순찰차, 형사 등을 현장으로 출동시켰고, 이 남성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11번 승강장 건너편 철망벽을 넘어 부산역 승무원 식당으로 도주했다.

이어 남성은 식당 내 직원이 사용하는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도자기를 던지며 완강히 저항했고, 경찰이 창문을 통해 테이저건을 쏴 A(58)씨를 검거한 이후 A씨를 철도경찰대에 인계했다.

A씨에게 붙잡혀 있던 인질은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KTX 열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무임승차 사실이 승무원에게 적발됐고, 이 과정에서 미리 갖고 있던 흉기를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